

복지이슈 FOCUS

현상공감 경기복지재단

제04호
2022-04

2022. 05.

경기도 1인가구 주거 관측은가?

최조순 연구위원 (ehjs11@ggwf.or.kr)
이주영 연구원 (hisglory@ggwf.or.kr)

목차

- I. 연구개요
- II. 경기도 1인가구 변화 양상
- III. 1인가구의 주거지원 방향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책임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주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3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 경기도 1인가구의 변화 특성

- 1인가구는 경기도 내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의 변화는 특정 대상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 지원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1인가구가 사회보장의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함
- 1인가구의 주거 문제는 지역에 따라 특성을 다르게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 1인가구의 구성이 달라 청년층 우위지역, 중장년층 우위지역, 고령화 예정지역, 고령화 진입지역 등으로 구분됨
 - 1인가구는 연령에 따라 주거안전성, 주거취약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청년1인가구의 주거안전성, 주거취약성, 주거비부담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기준(면적 기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연계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차적으로 월 임대료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타 연령층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의 주거지원 방향

-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 연령별 주거취약성 및 주거안정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청년층은 임대료 지원 및 주거환경 향상, 중장년층은 주거환경에 대한 열악성 개선, 노년층은 주거비 부담완화 등의 정책이 우선 추진 필요
 - 1인가구 주거 지원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문제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 방안 추진을 통해 대상자의 주거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후속과제
 - 1인가구 정책대상에 대한 심층적·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지원정책과 정책우선순위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적 주거지원정책이 결합된 지역기반의 주거지원정책 체계 구축 필요

I 연구개요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독립적 삶에 대한 추구, 결혼인식의 약화,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하락 등 개인적·사회적 요인과 선택의 결과로 1인가구로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박미선·우지윤, 2021)
 - 2000년 이후 1인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수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전체 1인가구의 비중(19.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가 가장 낮은 것(13.6%)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1인가구는 1,406천 가구로 경기도 전체 가구 수(5,098천 가구)의 2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전체 1인가구의 비중(17.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세 미만이 가장 낮은 비중(0.6%)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지원 등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의 방향 제시 필요

■ 경기도 1인가구의 연령별 주거 특성 분석을 통해 주거지원 방향을 제안함

- 본 연구는 1인가구의 변화 양상과 연령·지역별 주거특성을 분석하여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층/중장년층/노년층으로 구분한 1인가구를 그룹화하여 주거환경 및 주거부담 수준 등을 분석하여 연령별 주거특성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연령별 주거특성을 통해 권역별 1인가구 구성과 주거현안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코자 함

■ 1인가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 진행

- 1인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대를 구분하여 양적 변화를 살펴봄
 - 청년층은 만19세~만34세, 중장년층은 만35세~만59세, 노년층은 만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

- 청년층의 연령은 「청년기본법」 제3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대 (만19세~만34세)를 기준으로 활용
- 분석자료는 최근에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자료,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가구부문 1인가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거실태조사는 경기도 코드를 활용하여 추출한 1,185 표본자료(결측값 제외),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는 최종 3,450표본을 활용하여 분석

II 경기도 1인가구 변화 양상

1) 1인가구 연도별 변화

- 2000년 이후 가구원수별 가구수 비중을 살펴보면, 1인, 2인가구의 중심의 가구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경기도 1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2.6%에서 2020년 27.6%로 15.0%p 상승 하였으며, 대표적 가구형태는 2000년 4인가구에서 2015년 이후 1인가구가 대표가구로 변화함

〈표 1〉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2000~2020)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증감	
구분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1인가구	338	12.6%	563	16.9%	777	20.3%	1,026	23.4%	1,406	27.6%	1,068	44.0%
2인가구	438	16.4%	647	19.4%	829	21.6%	1,062	24.2%	1,350	26.5%	912	37.5%
3인가구	576	21.6%	721	21.7%	868	22.7%	1,005	22.9%	1,120	22.0%	543	22.4%
4인가구	944	35.4%	1,033	31.0%	1,007	26.3%	971	22.1%	951	18.7%	8	0.3%
5인가구	280	10.5%	281	8.4%	269	7.0%	247	5.6%	218	4.3%	-61	-2.5%
6인가구	67	2.5%	63	1.9%	61	1.6%	56	1.3%	42	0.8%	-25	-1.0%
7인가구	26	1.0%	22	0.7%	20	0.5%	17	0.4%	11	0.2%	-15	-0.6%
전체	2,669	100%	3,329	100%	3,831	100%	4,385	100%	5,098	100%	2,430	100%
다인가구	2,331	87.4%	2,766	83%	3,054	80%	3,358	77%	3,692	72.4%	1,361	56.0%

주1) 다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의 합을 의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연령별 가구수 변화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짐

- (전체 가구수) 청년층 가구는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장년층 및 노년층 가구는 증가하는 등 1인가구의 연령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00년부터 2020년 기간동안 연령별 가구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 가구비중은 감소한 반면, 노년층 가구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전연령층에서 1인가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가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1인가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후 청년층의 1인가구 비중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의 부모세대와의 분리(독립) 현상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령대별 가구수 변화(2000~2020)

(단위 : 천 가구, %)

구분	전체 가구 수						비중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00~20)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00~20)
청년층	648	675	638	578	704	56	24.4	20.3	16.7	13.2	13.8	▼ (-10.5)
중장년층	1,646	2,097	2,453	2,723	2,940	1,293	61.9	63.2	64.2	62.2	57.8	▼ (-4.1)
노년	365	547	733	1,074	1,445	1,080	13.7	19.2	19.2	24.5	28.4	▲ (3.7)
합계	2,659	3,319	3,823	4,374	5,089	2,429	100	100	100	100	100	-
구분	1인가구 수						비중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00~20)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00~20)
청년층	132	212	240	242	384	253	39.6	38.0	31.1	23.7	27.5	▼ (-10.5)
중장년층	122	220	342	463	594	471	36.8	39.6	44.4	45.3	42.5	▲ (2.9)
노년층	78	125	189	317	419	341	23.6	22.4	24.5	31.0	30.0	▲ (7.6)
합계	333	557	771	1,021	1,397	1,064	100	100	100	100	100	-

주1) 가구주가 청년층(만19세~만34세), 중장년층(만35세~만59세), 노년층(만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1인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50대 연령층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짐
 - 65세 이상은 2000년 대비 약 24만 가구, 50대는 약 20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25세~29세 7.6만 가구, 30세~34세 4.5만 가구가 증가하는 등 최근 시점일수록 젊은 연령층의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연령대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연령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2020년 기준 20-24세 가구 중 1인가구는 77.2%, 25세-29세는 6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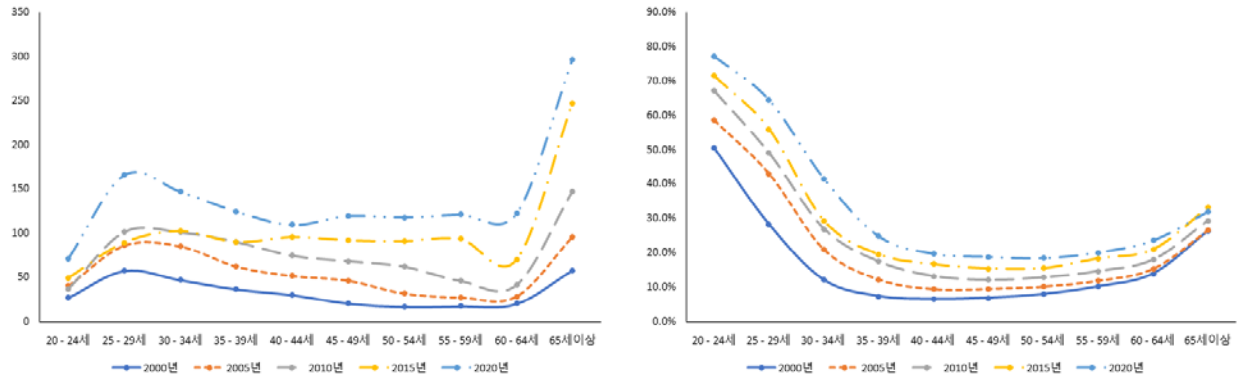
〈표 3〉 연령대별 1인가구수 변화(2000~2020)

(단위 : 천 가구, %)

구 분	전체가구 수					1인가구 수					1인가구 비중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세	54	69	55	69	92	27	40	37	50	71	50.5	58.7	67.1	71.5	77.2
25-29세	204	200	207	160	257	58	86	102	90	166	28.3	43.1	49.0	56.0	64.5
30-34세	390	407	376	349	354	47	85	101	102	147	12.1	21.0	27.0	29.4	41.6
35-39세	496	511	518	461	504	37	62	90	90	125	7.4	12.2	17.4	19.6	24.8
40-44세	465	551	567	573	556	30	52	75	96	110	6.5	9.4	13.2	16.7	19.7
45-49세	300	489	565	595	636	21	46	69	92	120	6.9	9.5	12.1	15.5	18.8
50-54세	212	314	487	587	640	17	32	62	91	118	8.0	10.2	12.8	15.5	18.5
55-59세	172	232	316	508	604	18	28	46	94	121	10.2	11.9	14.7	18.4	20.1
60-64세	145	186	231	333	517	20	29	42	70	122	14.0	15.4	18.0	21.0	23.6
65세 이상	220	361	502	740	928	58	96	147	247	297	26.4	26.6	29.4	33.3	32.0
총계	2,659	3,319	3,823	4,374	5,089	333	557	771	1,021	1,397	12.5	16.8	20.2	23.3	27.5

주1) 총계는 해당 연령층의 합으로 분석함(20세 미만 및 연령 미상은 총합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1〉 연령대별 1인가구 변화(좌) 및 1인가구 비중변화(우)(2020~202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남성이, 노년층은 여성이 홀로 사는 비율이 높음

- 청년층은 남성 1인가구 중심, 노년층은 여성 1인가구 중심의 체계에서 성별의 균질화 현상으로 인하여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이 희석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청년층) 남:여 1인가구 비율이 약 6:4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여성의 비율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중장년층) 남:여 1인가구 비율이 5:5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남성 1인가구의 비율 증가로 인하여 6:4 구조로 변화함
 - (노년층) 남:여 비율이 2:8에서 노년 남성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4:6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표 4〉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변화(2000~2020)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청년층	63.0	61.2	60.8	59.8	60.4	▼(-2.7)	37.0	38.8	39.2	40.2	39.6	▲(2.7)
중장년층	53.5	57.5	59.6	58.8	63.1	▲(9.5)	46.5	42.5	40.4	41.2	36.9	▼(-9.5)
노년층	21.1	23.6	26.7	27.4	35.2	▲(14.2)	78.9	76.4	73.3	72.6	64.8	▼(-14.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역별 1인가구 변화는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 권역별 1인가구는 연령에 따라 집중되는 지역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 경원권, 경의권, 동부권에서 1% 범위 내에서 소폭 증가·감소 경향을 보임
 - (중장년층) 서해안권, 경의권, 동부권에서 1인 가구 증가 경향을 보임
 - (노년층) 전 지역에서 1인가구 증가 경향을 보이며,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증가 경향이 두드러짐

〈표 5〉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변화(2000~2020)

(단위 : %)

구분	청년						중장년						노년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2000	2005	2010	2015	2020	변화
경부권	17.1	16.3	13.5	11.2	10.7	▼ (-6.4)	13.1	13.9	15.6	15.9	12.9	▼ (-0.2)	7.3	7.2	8.2	8.5	9.4	▲ (2.2)
경원권	2.3	1.9	1.4	1.5	1.5	▼ (-0.7)	3.5	3.3	3.4	3.7	3.1	▼ (-0.3)	2.6	2.4	2.7	2.7	3.1	▲ (0.6)
경의권	3.0	3.7	2.9	2.8	3.1	▲ (0.2)	3.9	4.6	5.2	6.3	5.9	▲ (2.0)	2.8	2.9	3.1	3.4	4.1	▲ (1.3)
동부권	3.2	2.5	2.2	2.3	3.0	▼ (-0.2)	5.1	4.9	5.3	6.3	6.2	▲ (1.1)	4.3	3.8	3.8	4.1	5.0	▲ (0.7)
서해안권	13.5	13.2	10.9	8.4	8.9	▼ (-4.6)	10.8	12.5	14.5	15.4	14.1	▲ (3.4)	6.3	5.9	6.5	6.8	8.1	▲ (1.8)

주1) 가구주가 청년층(만19세~만34세), 중장년층(만35세~만59세), 노년층(만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주2) 권역기준은 경기도(2011), 「경기도종합계획(2012~2020)」의 계획권역을 기준으로 설정

경부권역 :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성시

경원권역 :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경의권역 :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동부권역 :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서해안권역 :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 1인가구의 질적 특징

■ 점유형태 현황

- 연령별로 청년층, 중장년층은 ‘보증금 있는 월세’, 노년층은 ‘자가’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청년층 1인가구의 45.1%는, 중장년층 1인가구의 39.7%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반면,
 - 경기도 노년층 1인가구의 48.7%는 ‘자가’ 거주비율이 월등하나, 26.7%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등 동일 계층 내 주거빈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6〉 연령대별 1인가구 주거점유형태(2020)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경기도 일반가구	55.3	18.5	21.3	1.5	0.2	3.2	100
경기도 1인 가구	30.9	21.9	37.3	3.7	0.5	5.7	100
청년층	13.0	32.9	45.1	3.1	0.4	5.5	100
중장년층	29.8	19.9	39.7	4.3	0.5	5.8	100
노년층	48.7	14.8	26.7	3.5	0.7	5.6	100

주1) 가구주가 청년층(만19세~만34세), 중장년층(만35세~만59세), 노년층(만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자료: 통계청(2021),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기준 자료 분석.

- 월세 거주가구의 월세와 보증금의 수준을 살펴보면, 월세와 보증금의 관계에 따라 취약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층이 주거취약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취약성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수준의 관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데, 보증금 대비 월세지급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주거취약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경기도 1인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2,455만원, 평균 월 임대료는 33.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1,850만원, 월임대료는 35.8만원수준으로 나타남
 - 월세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월 임대료 미지급 또는 임차 부동산에 대한 훼손 등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증의 성격이 강함

-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금에서 해당 월대료만큼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월 임대료 미지급시 보증금을 통해 최대 보장되는 임차기간을 상쇄율(기간)으로 산출 가능
-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타 연령층, 경기도 전체 1인가구에 비해 월세 대비 보증금 상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거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연령대별 1인가구 월세 대비 보증금 상쇄 수준

(단위: 만원, %)

구분	평균 보증금	평균 월 임대료	월세 대비 보증금 상쇄율
경기도 1인가구	2,455	33.8	72.6
청년층 가구	1,850	35.8	51.6
중장년층 가구	2,849	33.6	84.8
노년층 가구	4,175	20.4	204.7

주1) 가구주가 청년층(만19세~만34세), 중장년층(만35세~만59세), 노년층(만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자료 :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원시자료.

■ 주거비 부담 수준

- 주거비 부담(Rent to Income:R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청년층이 가장 높고, RIR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청년가구가 상대적으로 심각
- 청년층의 RIR은 25.0%로 나타나고 있고,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7.0%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8〉 연령대별 1인가구 주거비 부담 수준

(단위: %)

구분	경기도 1인 가구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RIR	22.3	25.0	20.1	11.9
주거비 과부담 가구	6.4	7.0	6.1	0

주1) 소득과 월 임대료가 모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주2)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원시자료.

- 매월 지급되는 월 임대료에 대한 연령별 부담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 연령층에서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월 임대료 납부에 대한 부담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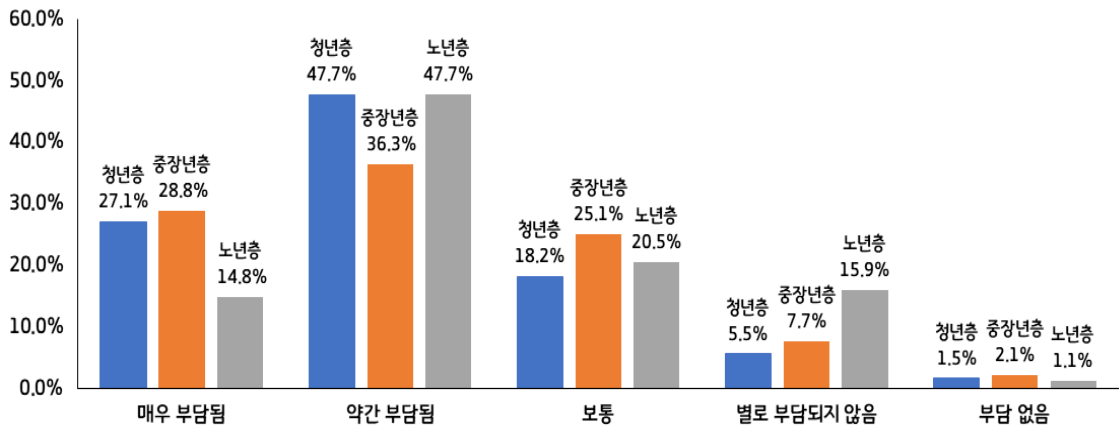
〈표 9〉 연령대별 1인가구 월 임대료 납부 부담 수준

구분	경기도 1인 가구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임대료 부담 수준	3.86	3.93(▲0.07)	3.82(▼0.04)	3.59(▼0.27)

주1) 임대료 납부 부담 수준은 최대 5점, 최소 1점(최대값에 가까울수록 임대료 납부 부담이 큰 것을 의미)
 주2) ()는 경기도 1인가구 전체와 비교한 가감수치를 산출(▲: +, ▼: -)
 자료 :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원시자료.

- 연령별 월 임대료 납부에 대한 부담수준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 1인가구는 74.5%, 중장년층 1인가구는 65.1%, 노년층 1인가구는 62.5%가 부담된다고 응답함

〈그림 2〉 연령대별 1인가구 주거비 부담 응답 현황



자료 :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중장년층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주거면적은 청년층 1인 가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가구는 3.6%수준으로 나타났고, 청년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가구는 7.4%로 전체 대비 약 2.05배 수준으로 나타나, 물리적 환경측면에서의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인가구 전체의 평균 주거면적은 40.1㎡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1인가구 전체 주거면적의 79%수준으로 나타남
 - 주거면적 측면에서 볼 때, 청년1인가구는 주거면적측면에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연령대별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및 평균 면적

(단위: %)

구분	경기도 1인 가구 전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3.6	7.4	2.0	0.6
평균주거면적(㎡)	40.1	31.9(▼8.2)	43.4(▼3.3)	46.7▲(6.6)

주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인가구 기준면적 14㎡보다 적은 면적으로 산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방수(개)	1	1	2	3	3	4
면적(㎡)	14	26	36	43	46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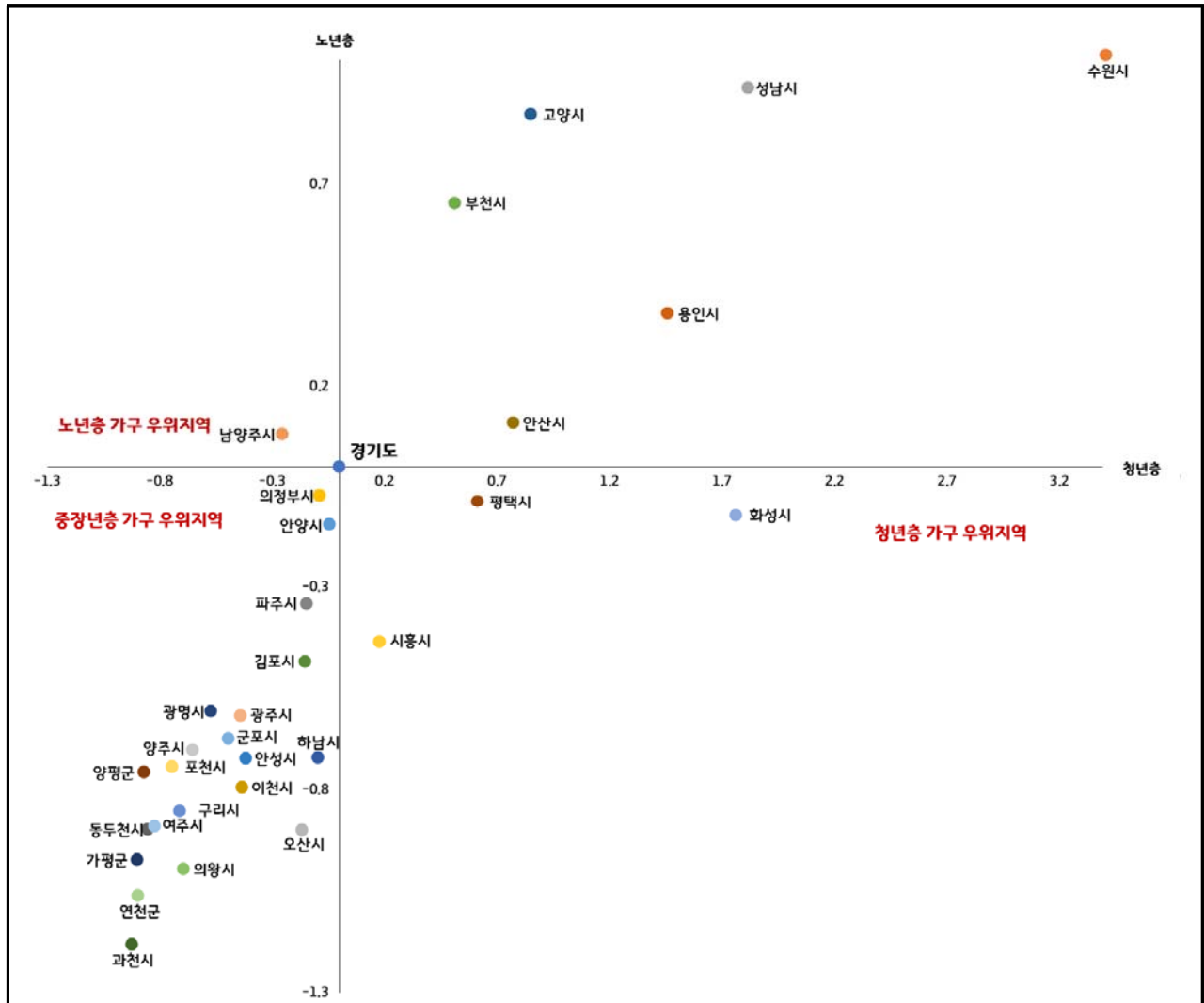
출처: 국토해양부(2011),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제2011-490호

주2) ()는 경기도 1인가구 전체 평균주거면적과 비교한 가감수치를 산출(▲: +, ▼: -)
 자료: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원시자료.

■ 1인가구 연령별 지역 분포 특성

- 경기도 연령별 1인가구 평균 비율은 청년층 7.5%, 중장년층 11.6%, 노년층 8.2%이고,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각 시·군별 차이를 맵핑하여 연령별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분석함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맵핑 방법은 각 시군의 값과 경기도 평균의 차이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된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차이가 큼을 의미(박미선·우지윤, 2021)
 -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원점, 0,0)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멀어질수록 경기도와의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함
- 연령별 1인가구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가 청년층 1인가구의 우위지역으로 나타났고, 남양주시는 노년층 1인가구의 우위지역으로 나타남
 - 2사분면은 청년층 가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노년층 가구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노년층가구가 ‘노년층 가구 우위지역’, 3사분면은 노년층 가구와 청년층 가구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중장년층 가구 우위지역’, 4사분면은 청년층 가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노년층가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청년층 가구 우위지역’으로 나타남
 - 1사분면은 전연령의 1인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밀집된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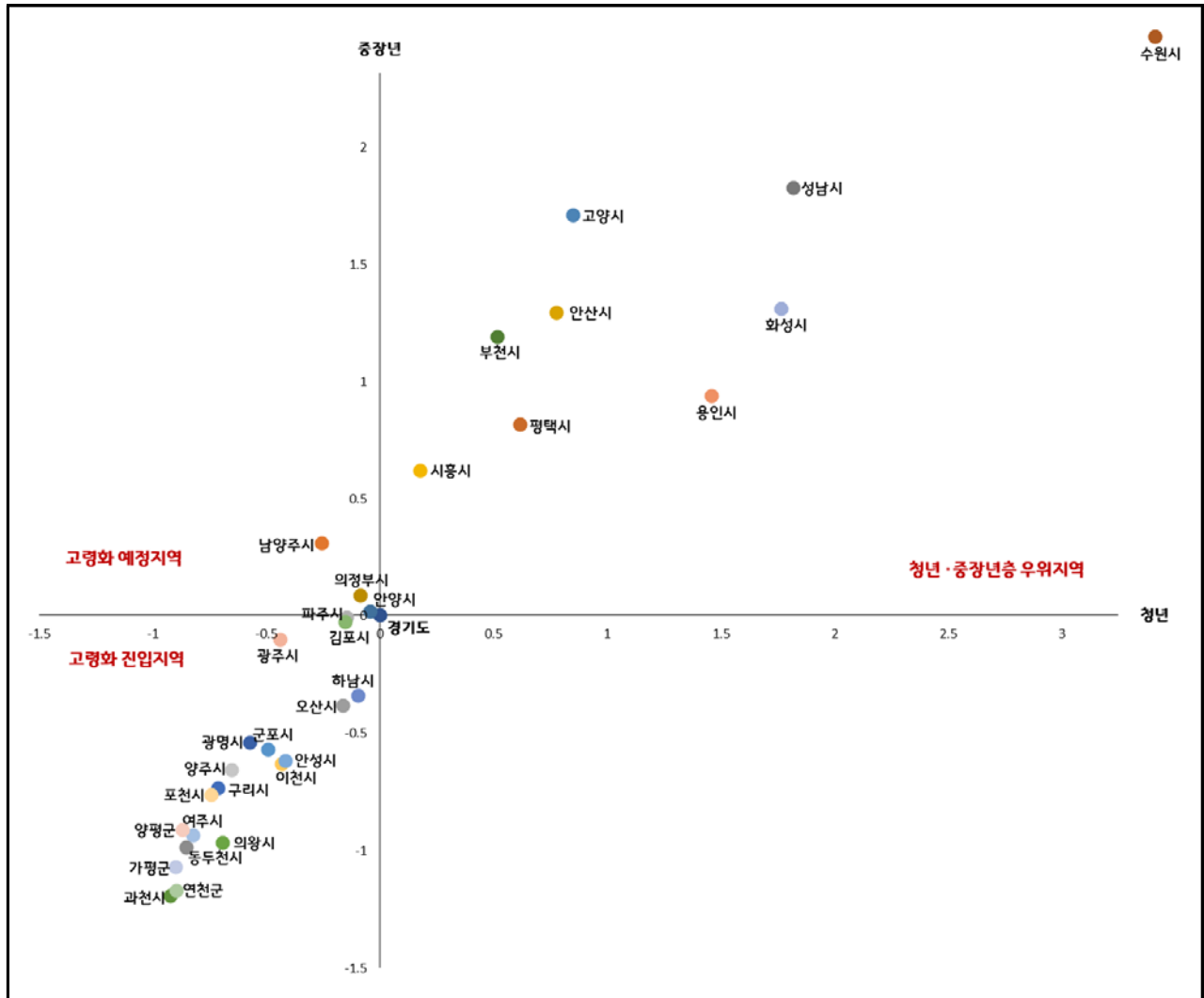
〈그림 3〉 시·군별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청년-노년)



주1) 각 시군의 지점은 각 시·군의 값과 경기도 평균값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활용함
 자료 : 통계청(2021),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기준 자료 분석

- 청년층 가구와 중장년층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지역구분에서는 청년·중장년 우위 지역과 고령화 예정지역, 고령화 진입지역으로 구분
 - 청년층 가구와 중장년층 가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1사분면은 '청년·중장년층 우위지역', 중장년층 가구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청년층 가구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2사분면은 '고령화 예정 지역', 청년층 가구와 중장년층 가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모두 낮은 3사분면은 '고령화 진입 지역'으로 나타남
 -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등의 지역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우위 지역'으로 분석되었고,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은 '고령화 예정지역', 이외의 시군은 '고령화 진입 지역'으로 분석됨

〈그림 4〉 시·군별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청년-중장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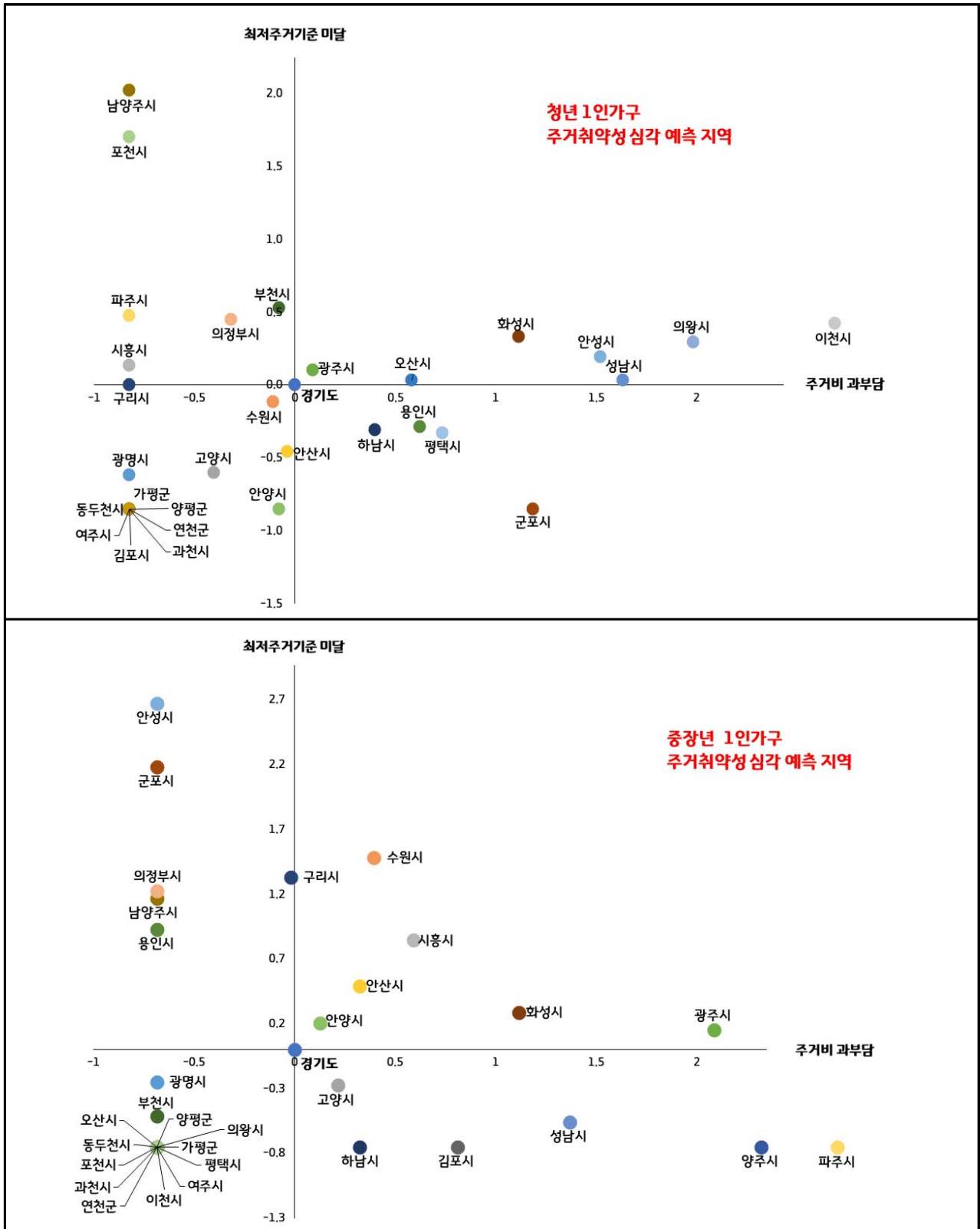


주1) 각 시군의 지점은 각 시·군의 값과 경기도 평균값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활용함
 자료 : 통계청(2021),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기준 자료 분석

■ 1인가구 연령별 주거취약성 분석

-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미달(면적기준)의 관계를 통한 주거 취약성 분석 결과 청년층 1인가구는 이천시, 의왕시, 안성시, 화성시, 성남시 등의 시·군에서 주거비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광주시, 화성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등의 시·군에서 주거비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년층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관계를 통한 취약성 분석의 유의미성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시·군별 연령대별 1인가구의 주거취약성 분석(위: 청년 1인가구, 아래: 중장년 1인가구)



주1) 각 시군의 지점은 각 시·군의 값과 경기도 평균값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활용함
 자료 :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원시자료.

3) 1인가구의 변화 특성 및 시사점

- 경기도 내 1인가구는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경기도 내 연령별 1인가구는 청년층의 1인가구 거주 비율이 고점에서 형성하고 중장년층의 1인가구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점이었다가 노년층에서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성별 1인가구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남성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년층은 여성 1인가구 비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성별 1인가구의 비중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 시점일수록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남성 1인가구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1인가구의 주거의 질적 수준은 주거안정성과 취약성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는 '보증금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자가'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인 가구는 주거비부담에 대한 체감수준과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에 대한 취약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월 주거비 부담수준(RIR)도 높고,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 비율도 높은 편으로 주거 취약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년층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의 지속적 증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노출 위험의 증가뿐만 아니라 평생임차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박미선, 2021)
- 1인가구의 주거문제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유형에 맞는 정책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수립 필요
 - 1인가구의 주거취약성도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을 고려한 주거 취약성을 지역과 연령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별 정책우선순위 대상자는 상이하게 도출됨
 - 특히,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연계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차적으로 월 임대료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타 연령층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정책 지원에서도 우선 고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주거지원 방향

■ 1인가구 연령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고려

- 청년층 1인가구는 주거비용에 민감하며 사회 및 경제 활동의 초입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완성되지 않고, 자산형성의 기회도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청년층 1인가구는 주거비부담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립과 안정적 생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비 경감과 주거환경 상향에 집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
 - 청년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청년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등 임대료 경감 지원 정책과 청년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유주택 등의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 추진의 집중이 필요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단순하고 획일적인 공급형태가 아닌 청년층의 욕구 및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이 필요
- 중장년층 1인가구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주거환경에 대한 열악성을 개선하고, 최저주거기준 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거상향 지원정책에 집중 필요
 -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이 갖춰진 주거를 제공하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등을 활용한 주거비 경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노년층 1인가구는 주거취약성 측면에서는 청년층,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성 수준은 낮은 수준이나, 주거비와 관련된 부담 수준은 존재하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1인가구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문제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적절

- 이천시, 의왕시, 안성시, 화성시 등의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청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해당 시·군 중 이천시, 의왕시 등의 지역은 청년층 1인가구의 임대료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의 우선 시행이 필요하고, 화성시, 광주시 등의 지역은 청년층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등 주거환경을 상향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우선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등의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됨
- 광주시와 화성시의 경우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정도가 크므로, 임대료 경감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수원시, 시흥시는 주거상향지원 등 주거환경을 적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 추진 필요성이 높음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후속 과제

○ 1인가구 정책대상에 대한 심층적·다차원적 실태 분석 선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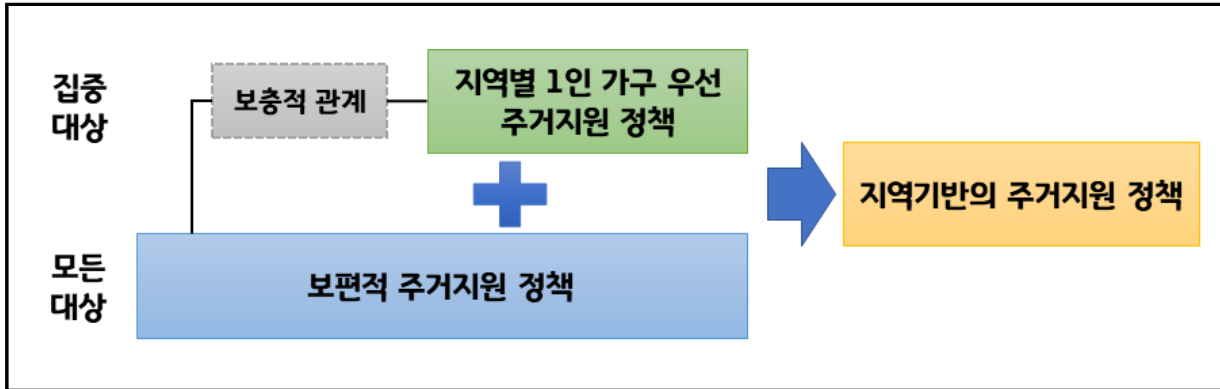
- 현행 1인가구에 대한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주거실태조사(1년)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1인가구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는 시간차가 크기 때문에 1인가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시간적 정확도가 떨어지고, 주거실태조사는 전국단위에서 시행되는 조사이므로 기초단위(시·군·구)단위의 정확도를 산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단년도 조사에 그치고 있고, 시·군 단위의 1인가구 변화 및 실태, 예측 등 면밀한 분석을 위한 표본의 충분성 확보에는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경기도 내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정책 대상으로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의 「1인가구 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시·군 표본 수의 확대를 통해 1인가구의 대한 면밀한 실태분석 기반 마련이 필요
- 1인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의 구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발생 시 1인가구의 사회적·경제적 충격에 대한 예상을 통해 적시성·적절한 정책 대응이 가능
- 또한, 남성의 1인가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로 인한 노숙인으로서의 전락, 고독사 등 발전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예방 정책 추진이 가능

○ 지역기반의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의 수립·추진

- 지역, 연령 등에 따라 1인가구 지원정책의 수요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지역기반의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현행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은 전국 혹은 광역단위를 대상으로 했고, 지역별 변화 및 여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함
- 경기도 내 연령별, 지역별 주거취약성 및 1인가구 변화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간 차이와 정책 우선대상자와 지원방법이 다르게 도출되어서 지역 중심의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의 마련은 필요함

- 즉, 가구특성 및 전 연령, 지역을 포괄하는 주거지원정책은 보편적으로 추진하되, 지역 내 1인 가구의 우선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병행되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필요

〈그림 6〉 지역기반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체계(안)



- 지역 내 1인가구 주거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정립
 - 지역 내 1인가구 중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청년층을 정책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지원 방식은 임차료 지원 등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중장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은 중장년층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노후주택 정비, 주거상향지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실현이 가능
- 지역기반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 체계는 1인가구의 삶의 질 및 사회적 보호권 강화 촉진 가능
 - 지역기반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체계 내에서 1인가구는 보편적 주거지원 정책과 지역 내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부여받아 주거복지 정책의 승수효과 기대 가능

참고문헌

- 김강산(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경기도(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2021).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 국토해양부(2011).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 박미선(2021). “청년주거불안양상과 주거안정 지원방안”, 『대전세종포럼』 제79호, 대전세종연구원.
- 박미선·우지윤(2021).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구원.
- 통계청(2021). 『2020 인구주택 총조사』.
- 황경란 외(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경기복지재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2-04

경기도 1인가구 주거 괜찮은가?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인 문정희 대표이사 직무대리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현장공감
복지재단

